

초선 61%... 지역 현안 해결 '한 목소리 구조' 만들어야

정치신인 당선되기 쉬운 지형, 중량감 있는 다선 배출 어려워 상임위 배정, 위원장·간사 선임 과정 불이익... 정치력 약화 되풀이 개개인 '정치력' 관건... 현안 해결 관련 법률 개정·제정 협의 시급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광주·전남 지역구 당선자에게는 '호남 정치 복원'이 최대의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역 당선자 중 초선 비율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자칫 정치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의원간 활발한 소통과 협업 등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광주·전남 군공항 이전 등 현안 해결과 건축재정 기초 속에서 지역 예산을 쟁겨야 하는 등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력 발휘도 절실한 실정이다.

10일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게 된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18명 중 11명이 초선이다. 현역 물갈이 비율은 61.1%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초선 13명(72.2%)인 것과 비교할 때 물갈이율은 다소 낮아진 셈이다.

광주는 민행배(광산을) 당선자를 제외하고는 7명이 초선이고, 전남은 10명 중 조계원(여수)·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군)·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군)·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등 4명의 초선이 여의도행 열차의 탑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에서는 김원이(목포)·주철현(여수) 의원의 재선에 성공했고, 서삼석(영암무안신안)·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3선 고지에 올랐다. 4선과 5선에 성공한 당선인은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박지원(해남완도진도)이다.

이처럼 광주·전남의 현역 교체 비율이 높은 이유는 '당 지도부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해도 당선'이 되는 '정치 지형' 탓이며, 오랜 시간 되풀이되다 보니 호남 다선 의원의 씨가 마르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현역의원 8명 중 7명이 교체되면서 다선의 무게감을 갖는 정치인들이 대폭 줄어 '호남 정치력'의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따라서 초선 그룹이 계파 등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향후 정국에서 무게감 있는 자신들의 정치력을 발휘할 지가 과제로 꼽히고 있다.

국회는 다선 의원 우선으로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가 정해지고 주요 상임위 배정 등 다선 의원을 중심을 짜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초선 의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당 지도부 선결과 주요 상임위 배정, 상임위 위원장·간사 선정 과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광주·전남지역은 선출직 최고위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과 송갑석(서구갑) 의원이 잇따라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했지만 지역 분열과 '친명'(친 이재명) 주자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탓에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다만, "지도부에 호남의 목소리가 전혀 담기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송갑석 의원이 뒤늦게 지명직 최고위원에 선임됐지만 이마저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의결 과정에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주요 상임위 배정과 위원장·간사 선임 과정의 불이익도 컸다. 21대 국회에서 광주·전남은 상임위 간사는 전혀 맡지 못했고, 그나마 21대 국회 하반기에 당 지도부의 배려에 따라 재선이었던 서삼석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역 예산을 챙길 수 있었다.

상임위 배정과과정에서도 호남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전남지역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의원이 풀리면서 주요 상임위에는 전남지역 의원이 전혀 없는 불균형도 발생했다.

이처럼 당 지도부와 주요 상임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는 호남 정치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22대 총선 당선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회 운영 전반에 걸쳐 초선 의원의 진입 장벽이 있는 건 사실이다. 다선 의원 중심으로 각당의 지도부가 꾸러지고, 위원회도 의원 선수로 뽑기 때문에 초선이 많은 지역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당 지도부가 특정 지역을 배려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당선자들은 각자의 정치행보와 이익을 앞세우기 보다는 지역의 공통적인 현안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 현안 해결과 관련 법률 개정·제정을 위한 지역 당선자의 협업도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논의만 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은 이번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손꼽힌다. 국민의힘도 이 문제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지역 당선자들의 빠른 준비와 대응이 결집된다면 광주의 오랜 한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초선 비율이 높은 만큼, 광주·전남도 예산 확보에도 국회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지역 안배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을 국회 예산 심의의 핵심 요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정해줄 때에 따라 전략적인 선택과 체계적인 대응도 뒤따라야 한다.

또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상임위 배분도 절실하다. 일부 인기 상임위에 지역 당선자들이 몰리던 현안 사업과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전략적으로 의원을 배치했다. 반면,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남의 경우 절반 가량의 의원이 농해수위에 배정되면서 불균형한 상임위 활동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오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후보들이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호남 1석 목표였던 국힘, 이번에도 0석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광주·전남 지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현재 광주 59.0%, 전남 85.0%가 개표된 11일 0시 현재 민주당이 광주 8석, 전남 10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16년 만에 광주·전남 전 지역구에 공천을 완료하면서 전의를 불태웠으나 결국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이번 총선에서 15% 이상의 득표와 최소 1석 당선목표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울 전망이다. 11일 0시 현재 광주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들이 7~10% 득표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에 출마한 이정현 후보가 개표율 78.0%에서 25.0%의 득표율을 보여 선전하고 있다. 전남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도 대부분 10% 미만의 득표

율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지지세를 넓혀 이를 수도 권으로 이어가려했으나 각종 약재가 겹치면서 위협할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15일 광주와 전남을 한 차례 순회한 것 외에는 중앙당 차원의 관심도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16년 만에 광주·전남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내 의욕을 보였고, 후보자들도 과거와는 달리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 광주·전남에서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무소속 후보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전남 전략적 선택은 '조국혁신당'

46.85% 투표... 전국 최고 지지

광주·전남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전략적 선택은 '조국혁신당'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호남 표심은 비례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전국 최고 수준의 지지를 보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광주 유권자들은 11일 0시 현재(개표율 11.57%) 비례대표 선거 과정에서 46.85%의 표를 몰아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같은 시각 조국혁신당의 전체 득표율이 22.46%라는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 지지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연합에 대한 지지(37.30%)보다 높았다.

전남 유권자들도 조국혁신당에 40.23%의 지지를 보여줬고, 전북 유권자들도 40.75%가 조국혁신당에 표를 던졌다. 전남 유권자들의 더불어민주당연합에 대한 지지율은 42.46%였다.

부산도 22.37%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시작된 지역임을 실감케했다. 조국 대표는 부산에서 "이제 고마 치아라마"라는 연설로 조국혁신당 돌풍을 불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 서울(23.62%), 대전(22.73%) 등도 20%가 넘는 지지를 줬다. /김지우 기자 dok2000@

사전투표, 10명 중 4명 이상이 '5060'

지난 5~6일 실시된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60대가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1384만9043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60대가 314만1737명(22.69%)으로 가장 많았다.

50대가 311만7556명(22.51%), 40대가 216만7505명(15.65%), 70대 이상이 207만3764명(14.97%)으로 뒤를 이었다. 50·60대가 전체 사전투표자의 45.20%를 차지한 것이다. 사전투표자가 가장 적은 연령대는 30대로 155만9701명

(12.26%)이었다. 18~29세는 178만8780명(12.92%)이었다.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 때는 50대가 257만6527명(21.9%)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다. 60대가 215만2575명(18.3%), 40대가 207만4663명(17.7%)으로 뒤를 이었다.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 때는 50대가 358만6939명(22.0%), 60대가 329만3577명(20.2%), 70대 이상이 205만9953명(12.6%)이었다. 대선 당시에도 20대(18~19세 제외)가 236만4939명(14.5%)으로, 30대 201만5994명(12.4%)보다 많았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공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운영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집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친감제 (Nexchx)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원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원인더스트리

Headquarter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